

## 프랑스 혁명 이념 ‘우애’에 대하여 : 한국어 번역 문제와 개념의 역사

고 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 ◆ 국문초록

우애(fraternité)라는 단어는 중세 유럽에서 코뮌이 성장하던 시기에 등장했다. 우애는 도시민들을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봉건 질서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사적 재산의 소유를 통해 자유와 평등을 보전하려는 부르주아 계급에 맞서 가진 것이 없는 하층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장치로서 주장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우애를 박애로 번역해왔다. 우애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역은 단지 단어 하나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자유, 평등, 우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혁명의 기나긴 역사적 과정을 만들어낸 이념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없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프랑스 혁명의 성격 그리고 지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 자유, 평등, 우애, 소유, 프랑스 혁명

### 1. 머리말

자유(Liberté), 평등(Egalité), 우애(Fraternité)는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는 이념이다. 본 논문은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이념 가운데 우애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우애라는 번역어 사용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프랑스 혁명 이념을 자유, 평등, 박애로 번역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박애 대신에 우애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sup>1)</sup> 박애가 프랑스 혁명의 세 번째 이념인 fraternité의 번역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박애나 우애 혹은 우리말의 어떤 단어도 프랑스어 단어인 fraternité와 100%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fraternité는 유럽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 발전해온 우리말에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번역이란 단순하게 외국 단어를 같은 의미의 우리말 단어로 대치하는 행위만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상당수의 학술적인 글들은 번역이 불가능할 것이다. 번역하고자 하는 외국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우리말 단어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는 가장 근접한 우리말 단어를 골라서 그 단어 속에 새로운 의미를 담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fraternité의 의미를 담은 그릇으로 박애는 왜 부적합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II장에서 다룰 것이다. 유럽의 중세시기에 fraternité가 등장하는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박애의 의미에는 fraternité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애보다는 우애가 번역어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박애라는 번역의 오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러한 후에 III장에서는 fraternité, 즉 우애가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

1) ‘박애’라는 번역에 대해서 2000년대부터 서양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 되어 왔다. 강철구, 「세계사 속의 프랑스 혁명」, 『프레시안』, 2008년 7월 9일 참조. 박애를 대신하여 우애, 형제애, 동지에 등 여러 단어들에 제시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애를 사용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애가 본래의 의미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출간된 주명철의 『프랑스 혁명사』, 여문책, 2015-2019는 박애 대신 우애를 사용한다. 그러나 “박애는 ‘우애’의 엉뚱한 오역이다”(강철구), “역사학계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일본학계에 뿌리를 둔다”(주명철) 정도의 간단한 지적 말고는 왜 박애가 부적절한 번역어인지, 박애라는 번역어는 어떻게 등장했는지, fraternité의 기원과 역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 그리고 이후의 의미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자유, 평등, 우애라는 프랑스 혁명 이념은 단어들을 그저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세 단어들 간에 긴밀한 연관을 통해 혁명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제시한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초기에는 자유와 평등만 등장하였고, 우애는 혁명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확산된 이념이다. III 장에서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념으로서 우애가 왜 등장하게 되었고, 자유, 평등과 어떠한 연관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며, 19세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 II. 우애와 박애

### 1. Fraternité의 의미

먼저 프랑스어 단어 fraternité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자. fraternité는 라틴어 frater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frater는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서로 형제처럼 차별없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sup>2)</sup> frater에서 fraternus(형제의), fraternitas(우애)가 나왔고 라틴어 fraternitas가 프랑스어에 들어와 fraternité가 되었다. frater에서 나온 fraternité는 형제와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 서로에게 느끼는 유대감, 즉 우애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fraternité의 번역어로 자주 사용되는 박애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함’이다.<sup>3)</sup> 일상에서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 불쌍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때 박애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박애주의라고 하면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국가적 이기심 또는 종교적 차별을 버리고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 인류가 서로 평

---

2) *Dictionnaire Larousse Latin*, Paris: Larousse, 2016, ‘frater’ 항목 참조.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박애’ 항목 참조.

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sup>4)</sup> 오늘날 박애는 자선 혹은 인도주의의 대체어로도 흔하게 사용된다.

언뜻 보면 박애와 우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fraternité, 즉 우애는 공동체를 결합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박애와 중요한 차이를 가진다. 박애는 개인이 개인에게 가지는 감정이지만, 우애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우애와 공동체의 특별한 연관성은 단어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어에서 우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2세기이다.<sup>5)</sup> 앞서 말했듯이 우애의 어원이 중세 수도원의 수사들과 관련되어 있기에 기독교 연구자들은 우애가 중세의 종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어라고 설명하지만<sup>6)</sup>, 단어의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를 보여준다. 우애의 역사는 중세 봉건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근대사회를 향한 의지와 함께 전개되어 왔다. 우애는 중세적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근대적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인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애가 등장하는 역사적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 2. 코윈과 우애

우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유럽의 12세기는 도시가 부활하는 시기이다. 서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중세의 시작과 함께 유럽은 상업과 교역이 급격하게 퇴조하며 농업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다.<sup>7)</sup> 토지를 매개로 구성되는 봉건 영주와 농노의 계급질서가 확산되었고 도시는 쇠퇴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중세인들은 종교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했

---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박애주의’ 항목 참조.

5)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8, ‘우애’ 항목 참조.

6) 같은 글.

7) 유럽은 서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지중해의 통제권을 상실하였고, 이는 상업과 교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지중해는 로마세계의 중심지이며, 상업과 교역의 요충지였다. 자크 르 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5, 46쪽.

다.<sup>8)</sup>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기독교는 권력의 중심에 자리잡았고, 중세 봉건질서의 한 축을 구성했다. 10세기를 넘어서면서 유럽 사회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인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다. 생산력의 향상과 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부활을 가져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왕과 제후, 주교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자와 그 상품을 유통하는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도시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유럽 중세 시대 속에서 도시는 예외적인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자유의 공간이었다. 봉건질서의 속박에서 벗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수공업자가 상품을 만들고, 상인이 상품을 파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봉건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했다. 봉건질서 하에서는 지역 간 이동 등 개인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유로운 생산과 거래가 불가능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어려웠다. 그런데 도시는 어떻게 봉건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자유를 얻는 방법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거래를 통해 자유를 얻는 방법이다. 도시는 영주나 제후들에게 화폐를 제공하고 자치권을 획득했다. 영주나 제후에게 도시는 새로운 수입원이었으며, 따라서 금전적인 이익만 보장된다면 거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영주나 제후는 도시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허장(charter)을 발행했다. 특허장에는 '해당 도시의 주민은 누구나 자유로우며, 누구든 그 도시에서 일 년하고 하루만 거주하면 자유민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sup>9)</sup> 도시의 자유에는 기초적인 사법권과 행정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시에서 벌어진 사소한 범죄나 상인들 간의 분쟁은 영주나 제후의 개입없이 도시 법정에서 다루어졌다. 도시의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었다. 시 행정부는 세금을 거두고 도시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처리했다. 도시의 행정을 이끄는 시장은 영주나 제후가 임명하기도 했지만, 도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기도 했다.

8) 같은 책, 106쪽.

9) 브라이언 타이어나·시드니 페인터, 『서양중세사』, 이연규 옮김, 집문당, 1988, 278쪽.

특허장에는 길드(guild)를 구성할 권리도 명시되어 있었다. 길드는 상인과 수공업자가 자신들의 공통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합이었다.<sup>10)</sup> 조합원이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 길드는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공동으로 장례를 치러주었고, 부인과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조합원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운영했고, 지역의 축제와 교회를 지원하기도 했다. 길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사업독점권의 행사였다. 길드에 참여하지 않은 이는 길드가 관장하고 있는 업종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도시에서 수공업자로서 활동하거나 상업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길드에 가입해야 했다. 길드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도시의 관리와 운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길드는 도시를 대표해서 영주나 제후와의 교섭을 맡았고 길드의 간부는 도시의 행정직을 겸하고 있었다.

금전적 거래를 통해 특허장을 획득한 도시는 봉건질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영주나 제후가 도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시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확장하고자 노력했고, 기초적인 사법권과 행정권 외에 광범위한 정치권력은 도시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반대로 도시는 영주나 제후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들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정치권력을 강화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는 금전적인 거래나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도시가 자유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힘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다. 자유를 힘으로 쟁취한다는 것은 중세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었다. 근대적 자유사상이 싹트기 이전 중세인들은 자유를 나의 윗사람이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사들의 자유는 왕이 보장해주는 것이었고, 왕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주, 즉 신이 보장해주는 것이었다.<sup>11)</sup> 가장 강력한 힘에 종속될

10) 같은 책, 279쪽.

11) 이와 같은 사고는 16세기 장 보댕(Jean Bodin)의 ‘왕권신수설’로 이어진다. 장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는 기독교의 논리가 중세시대의 일반적인 사고였다.<sup>12)</sup> 그러나 중세 도시들 가운데에는 누구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하려는 도시들이 있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코뮌(commune)을 구성했다.

코뮌은 도시 주민들이 서약을 통해 결합한 자치공동체였다. 도시의 성인 남성들이 영주나 제후의 통치에 맞서기위해 상호 간의 연대를 서약함으로써 코뮌이 성립되었으며, 이들은 무력으로 봉건질서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켰다. 코뮌은 11세기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처음 출현했으며, 12세기부터는 프랑스, 플랑드르, 독일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코뮌은 서양의 고대 도시들 혹은 다른 대륙과 문화권에서 발전한 도시들과는 완연하게 구분되는 “유럽 중세도시의 독특한 현상”이었다.<sup>13)</sup>

‘우애’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코뮌이 확산되고 발전하던 시기였다. 코뮌에 참여하는 서약자들은 서로 간에 ‘형제의 유대감’(fraternit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sup>14)</sup> 이것은 코뮌이 ‘의형제 조합’(fraternitas, association fraternelle)에서 발전해 나왔다는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sup>15)</sup>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는 이웃사촌들의 상호부조 집단이 의형제 조합으로 발전하고, 이 우애 단체들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서 크게 번성했다. 그리고 11~12세기의 정치 상황 속

---

보댕, 『국가론』, 임승휘 옮김, 2005 참조.

12)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subject와 sujet는 주체와 종속,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언뜻 보면 서로 상충되는 뜻이지만, 여기에는 신에게 종속될 때 비로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기독교 사상이 담겨 있다.

13) Max Weber, *The City*, Don Martindale and Gertrud Neuwirth, trans. and ed., New York: Free Press, 1966, p.10.

14) 박용진, 「중세 프랑스 코뮌의 성격 변화 : 아미앵의 경우」, 『서양중세사 연구』 12권, 2003년 9월, 107쪽.

15) Robert Fossier, *Histoire de la Picardie*, Toulouse: Privat, 1974, p.136; Pierre Desportes, “Les communes picardes au Moyen Âge: une évolution originale”, *Revue du Nord*, t.70, Lille, 1988, p.284.

에서 의형제 조합은 코뮌의 등장을 이끌었다.

우애에 기반을 두었던 코뮌은 구성원들 간의 평등을 강조했다. 이는 중세의 지배적인 사회질서와는 전혀 다른, 코뮌의 혁명적인 특성이었다. 중세 봉건사회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분하고, 이들을 수직적인 서열 속에 종속적인 계급관계로 묶어버렸다. 중세 도시에서 번성했던 길드 역시 상급자인 장인과 하급자인 도제가 수직적인 계서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코뮌은 봉건적인 위계 서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뮌의 구성원들은 출신 성분과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12세기 말 교회 연대기 작가 기베르 드 노장(Guibert de Nogent)이 “코뮌, 그것은 무서운 이름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이유는 코뮌의 혁명적인 평등주의가 중세 봉건질서를 뒤흔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6)</sup>

### 3. 번역의 오류

우애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며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유대감이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개별적일 때는 미약한 존재들이 우애를 통해 서로 평등한 관계로 묶이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박애라는 단어에는 공동체나 평등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개별적인 존재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발휘하는 힘, 즉 현실을 변화시키는 집단적인 힘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일 상에서 사용되는 박애에는 휴머니즘에 기반하는 개인적인 실천의 의미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박애하면 우리가 흔히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의 의료 활동 혹은 장 앙리 뒤낭(Jean Henri Dunant)의 적십자 운동을 먼저 떠올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

---

16) 자크 르 고프, 『서양 중세 문명』, 348쪽.

기 때문에 박애는 fraternité의 의미를 담는 그릇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본래의 의미와 충돌이 생기고 결국은 원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왜 하필 박애라고 번역했을까? 박애라는 잘못된 번역을 처음 사용한 인물은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나카에 초민(中江兆民)이다. 나카에 초민은 에도 막부가 거의 끝나가던 1847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어를 배워 통역일을 하였고, 20대 중반에는 프랑스로 건너가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다. 그는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사상에 크게 매료되어 있었다. 루소를 적극적으로 일본사회에 소개했으며,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당시 나카에 초민의 지식인 동료들은 그를 “동양의 루소”라고 불렀다.<sup>17)</sup> 아마도 나카에 초민은 우애를 루소가 이야기하는 ‘인류애’로 이해했던 것 같다. 루소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연민과 동정심에서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sup>18)</sup> 박애에는 인도주의, 자선, 세계시민주의, 사해동포주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나카에 초민은 1887년에 출간한 『삼취인경륜문답』에서 향후 일본이 지향해야 할 길로 자유, 평등, 박애에 기초한 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이러한 민주국가의 성립은 군비철폐와 세계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9)</sup> “민주제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성하게 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합하여 한 가족으로 삼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입니다.”<sup>20)</sup>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세계평화론은 생 피에르(Abbé de Saint-Pierre), 루소, 칸트의 이론적 계보를 따른다고 말한다.<sup>21)</sup> 나카에 초민에게 박애는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연결해주는 매개 고리였던 것이다.

나카에 초민이 활동하던 19세기 말은 일본이 봉건시대를 마감하고

17) 박삼현, 「‘동양의 루소’ 나카에 초민」, in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소명출판, 2005, 17-18쪽.

18) Jean-Jacques Rousseau, *Émile ou De l'éducation*, Paris: Flammarion, 2009, pp.378-387.

19)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79쪽.

20) 같은 책, 77쪽.

21) 같은 책, 79-85쪽.

근대사회로 진입하던 시기였다. 1873년 메이지 정부는 징병령을 내리고 군비확충에 몰두한다. 그리고 곧이어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을 벌이며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갔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서 나카에 초민은 일본이 세계평화와 사해동포주의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으며, 어쩌면 박애라는 번역어에는 나카에 초민의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나카에 초민의 오역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 들여졌고 아직 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다. 우애의 오역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자유, 평등, 우애를 그저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세 단어들 간에 긴밀한 연관을 통해 혁명이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애의 오역은 프랑스 혁명 이념의 전체 구조와 의미를 왜곡시킨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번역의 잘못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념으로서 우애에 대해 살펴보겠다.

### Ⅲ. 프랑스 혁명과 우애

#### 1. 자유와 평등

프랑스 혁명의 이념으로 잘 알려진 자유, 평등, 우애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우애는 자유와 평등보다 늦게 등장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고 곧이어 8월 26일에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자유와 평등은 등장하지만 우애는 들어가지 않았다. 혁명 정부가 공포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제목 그대로 인간과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로 선언된 총 17개 조항의 제1조에서

부터 언급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며 존재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sup>22)</sup>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사실상 자유와 평등의 권리 선언이었다.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자유와 평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기본적인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제1조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선언하고, 나머지 16개 조항은 제1조를 보완하고 부연 설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자유와 평등에 대해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4조와 제6조이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연권 행사에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해야한다는 제약만 있을 뿐이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들은 직접 혹은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해주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만인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오를 수 있다.

---

22)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Paris, 1789 on the site [www.bnf.fr](http://www.bnf.fr). 이하에 인용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조항들은 출처를 생략한다.

이 조항들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제1조에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었듯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이야기하는 평등은 권리의 평등을 의미한다. 제4조와 제6조에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자유와 평등은 각기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 권리의 평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제4조는 자유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평등이 자유의 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법이다. 그런데 제6조는 그 법이 “일반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시민들은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한다. 이는 제4조에서 정의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이라는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법의 제정은 시민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결국 평등은 자유의 조건이지만, 동시에 자유는 평등을 보장한다. 더 나아가, 자유와 평등은 서로를 대체할 수도 있다.<sup>23)</sup>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그 의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는 표현의 자유, 제1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다. 그런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누구도”(제10조), “모든 시민들”

---

23) 에티엔느 발리바르는 자유와 평등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평등-자유’(l'égaliberté) 명제를 제시한다. Etienne Balibar, “‘Droits de l'homme’ et ‘Droits du citoyen’. La dialectique moderne de l'égalité et de la liberté”, *Actuel Marx* n.8, Paris, 1990, pp.13-32 참조,

(제11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유와 평등이 대체 가능하도록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시민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제1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하며, 동시에 언론, 출판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제10조와 제11조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조항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자유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이기 때문에 평등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서로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선언만으로 자유와 평등이 현실에서 실제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법을 통해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제정된 법이 실제로 기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아무리 강력한 법도 더 강한 힘으로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혁명 자신이 직접 증명한 바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 정부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마지막 조항에 포함시켰다.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소유권을 빼앗길 수 없다.

소유권은 이미 제2조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중요하게 강조된 바 있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17조는 제2조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선언했던 소유권에 대해 다시 명확하게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는 “자연

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리들”<sup>24)</sup>이 여럿 제시되지만, 그 중에서도 소유권은 특별하게 강조된다.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 등 소유권에만 다양하고 거창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소유권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힘이며, 이 힘은 사유 재산에서 생겨난다는 생각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17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가 동일한 주장을 제기했었다. 로크는 가장 중요한 자연권으로 자유, 생명, 재산의 소유권을 이야기했다.<sup>25)</sup> 로크에게도 사적 재산은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상업도시가 자치권을 놓고 영주나 제후와 협상을 벌일 때 도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핵심적인 쟁점이었다.<sup>26)</sup> 도시의 상공업자들, 즉 부르주아들에게 사적 소유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였으며, 그들이 가진 힘의 원천이었다.

결국,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나타나는 기본 이념은 자유, 평등,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자유, 평등, 소유는 프랑스 혁명 초기를 지배하는 이념이 된다.

24) “Le préambul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25) 로크는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유, 생명, 재산의 소유권을 이야기한다. 자유의 권리를 소유권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제2조에서 자유와 소유권을 따로 나열하면서 소유권의 범위를 사유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wnsham Churchill, 2009, 제2부 5장 “Of Property”를 참조.

26) 중세 도시민들은 봉건 영주나 제후에게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보장 받았다. 브라이언 타이어니·시드니 페인터, 『서양중세사』, 278쪽.

## 2. 우애의 등장

1789년에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세력 전체의 입장을 온전하게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혁명이 발생하고 혁명 정부가 '선언'을 준비할 때, 혁명에 가담했던 다양한 정파들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sup>27)</sup> 수십 편의 초안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채택된 것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혁명 세력 가운데 온건파의 입장을 담고 있었다. 온건파는 부르주아 계급과 계몽사상을 받아들인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프랑스 혁명 초기 혁명 정부를 장악했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작성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온건파 혁명 정부는 혁명이 지나치게 급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사회의 혼란이 커지면 자신들이 잡고 있는 주도권을 놓쳐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입헌군주제를 지지했고,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최하층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sup>28)</sup>

그렇지만 혁명이 진행되면서 혁명 정부의 온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대중들의 불만은 급진세력의 정치적 성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급진파를 이끄는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가 혁명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유, 평등, 우애라는 슬로건을 처음 언급한

---

27) 1789년 1월 라파예트가 첫 초안을 작성한 이래 미라보가 5인위원회를 대표하여 혁명 정부에 마지막 초안을 제출한 8월 17일에 이르기까지 총 60여 편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최갑수, 「1789년의 「인권선언」과 혁명기의 담론」, 『프랑스사 연구』 4호, 2001년 2월, 9쪽.

28) 온건파 혁명 정부는 '능동 시민'과 '수동 시민'을 구분했다. 능동 시민은 25세 이상의 남성으로 하나의 도시 혹은 일정 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3일분의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며 이들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수동 시민은 능동 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며 여기에는 빈민, 부랑자, 저임금 노동자 등이 속했다. 수동 시민은 25세 이상 남성 가운데 약 38%를 차지했다. 박윤덕, 「프랑스 혁명 초기의 수동 시민」, 『역사와 담론』 90호, 2019년 4월, 403-443쪽 참조.

인물이다. 그는 1790년 12월 5일 「국민방위군의 조직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인들의 가슴에는 이 말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인민 그리고 자유, 평등, 우애. 이 말은 그들이 휘날리는 삼색기에도 새겨질 것입니다.<sup>29)</sup>

우애라는 말 자체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흔히 사용되던 용어였다. 혁명의 참여자들은 “안녕과 우애”(Salut et fraternité)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sup>30)</sup>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1790년 7월 14일에 열린 혁명 기념 축제에서 라파예트(Gilbert du Motier, Marquis de La Fayette)는 “모든 프랑스인들은 우애의 굳건한 유대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31)</sup> 그렇지만 자유, 평등, 우애라는 슬로건은 로베스피에르 이전까지 사용된 적이 없었다.

자유, 평등, 우애를 혁명의 대표 슬로건으로 주장하고, 프랑스 사회에 널리 확산시키려 했던 이들은 코르들리에 클럽(Club des Cordeliers)이었다. 코르들리에 클럽은 1790년 파리에서 결성된 급진세력의 정치 모임이었다. 이들은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주장하였으며, 시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기본 권리의 행사를 보장받고자 했다.<sup>32)</sup> 인쇄업자 출신으로 파리 급진세력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

29) Maximilien Robespierre, *Oeuvres de Maximilien Robespierre*, Tome VI,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p.643.

30) “La fraternité”, *Laïcité Aujourd'hui*, Paris, 10. avril. 2013.  
(<https://www.laicite-aujourd'hui.fr/?La-Fraternite>)

31) Fabienne Manière, “14 juillet 1790, La Fête de la Fédération”, *herodote*, Paris, juillet. 2019.

32) 1790년 4월 27일 코르들리에 클럽의 결의문은 자신들의 목적을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공론의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또한 코르들리에 클럽은 권리의 수호를 위해 경제적 하층민들을 결합하고 교육시켜 다가올 보통선거를 준비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Albert Mathiez, *Le Club des Cordeliers pendant la crise de Varennes et le massacre du Champ de Mars*, Paris: Hachette, 2016, p.6.

던 앙투완 프랑수아 모모로(Antoine-François Momoro)는 1791년 코르 들리에 클럽의 연설에서 “자유, 평등, 우애”를 혁명의 공식 슬로건으로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열광하며 “자유, 평등, 우애 아니면 죽음”을 외쳤다.<sup>33)</sup>

그러나 자유, 평등, 우애는 당시 혁명 정부의 공식 선서나 선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자유, 평등, 우애는 자유와 평등에 단지 우애라는 단어 하나만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유, 평등, 우애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장치로 우애를 내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이미 자유, 평등, 소유를 통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장치는 소유라고 선언한 상태였다. 소유는 권리지만 우애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함의한다. 더구나 소유는 개인적 권리이며, 따라서 자유와 평등도 개인적 권리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애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함의하기 때문에 우애에 의해 보장받는 자유와 평등은 공동체의 가치 아래 놓이게 된다.

소유 혹은 우애의 문제는 혁명을 바라보는 입장과 혁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의 문제이기도 했다. 각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나뉘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사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르주아들과 귀족들은 소유권을 통해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전하고 더 나아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고자 했지만, 소유할 것이 없는 이들, 즉 경제적 하층이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중세 시기 봉건 질서에 맞서 코뮌의 구성원들이 그랬듯이 미약하나마 각자의 힘을 하나로 묶어 증폭시키는 것 밖에는 없었다.

1792년 9월 급진파가 권력을 잡고 이듬해 1월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입헌군주제는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섰다. 공공건물과 주택의 벽면에 “자유, 평등, 우애 아니면 죽음”이라는 슬로건이 새겨지기 시작했다.<sup>34)</sup> 그렇지만 급진파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1794년 7월 급진파

---

33) Amable Guillaume Prosper Brugière, *Histoire de la Convention nationale*, Paris: Nabu Press, 2012, p.322.

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가 긴급 체포되면서 급진파 정부는 와해되고 말았다.

### 3. 자유, 평등, 우애

급진파 정부의 몰락 이후 “자유, 평등, 우애 아니면 죽음”의 슬로건에서 우애와 죽음이 사라졌다. 1795년 8월 22일 새로운 혁명 정부가 공포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선언」에는 소유권의 유지가 시민의 의무로 명시되었다.<sup>35)</sup>

의무 제8조. 토지의 경작과 모든 생산물, 모든 노동 수단, 그리고 전 사회질서가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소유권의 유지이다.

의무 제9조. 모든 시민은 법이 그에게 보호를 촉구할 때마다 조국에게, 그리고 자유, 평등, 소유권의 유지에 봉사하는 의무를 지닌다.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프랑스는 공화국에서 제정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나폴레옹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은 “자유, 공공질서”였다. 나폴레옹의 몰락과 왕정복고를 거치고 1830년 혁명으로 루이 필립 정부가 집권하지만 공식적인 슬로건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루이 필립 정부의 슬로건은 “질서와 자유”였다.

이 기간 동안에도 자유, 평등, 우애는 대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정파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어 갔다. 19세기는 혁명 초기

---

34) Mona Ozouf,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in *Les lieux de mémoire*, Volume 3, Paris: Gallimard, 1997, p.4358.

35) *La Déclaration des droits et devoirs de l'homme et du citoyen*, Paris, 1795, Devoirs. article 8 et article 9 on the site [www.bnf.fr](http://www.bnf.fr).

의 온건파와 급진파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진화해 나가는 시기였다.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공화국을 지향했고, 공화국의 상징으로 자유, 평등, 우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1848년 혁명을 통해 자유, 평등, 우애는 다시 국가적 슬로건으로 등장한다.

사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도 자유, 평등과 함께 우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민족국가'(nation state)의 출현이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은 낡은 봉건 질서를 해체시켰고, 그 뒤를 이어 19세기 근대국가가 등장한다. 근대국가는 구성원들을 민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 국가에 대한 개인들의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1834년 프랑스 역사학회가 창설되었으며, 프랑스 민족의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편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오귀스탱 티에리(Augustin Thierry), 에드가르 키네(Edgar Quinet), 쥘 미슐레(Jules Michelet) 등 당대 최고의 자유주의 역사가들이 참여했다. 자유주의자들은 민족에 기반하는 근대국가를 열망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우애를 활용했다. 우애는 국가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국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무엇보다 국가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적 하층 계급은 프랑스 혁명의 기억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우애는 매우 친숙한 용어였다. 자유주의자들은 급진파의 유산을 향유하고 프랑스 전역에 보급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주도로 프랑스 각 지역에 설립되는 초등학교의 정문에는 자유, 평등, 우애의 슬로건이 새겨져 있었다.<sup>36)</sup>

그렇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우애를 받아들였을 때 자신들의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기서 우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온다. 우애의 의미를 변화시켰으로써 자유, 평등과 우애의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프랑수아 르네 드 샤토브리앙(François-René

36) Mona Ozouf,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p.4370.

de Chateaubriand)은 우애의 가치를 기독교 사상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유, 평등, 우애의 사명이 신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7)</sup> 빅토르 위고(Victor Hugo) 역시 1848년 파리의 대중 연설에서 자유, 평등, 우애를 기독교와 결부시켰다.

최초의 자유의 나무는 18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다. 최초의 자유의 나무는 인류의 자유, 평등, 우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sup>38)</sup>

자유주의자들은 우애를 기독교의 역사와 연결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유, 평등, 우애의 기원을 계몽사상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주로 인용되는 것은 볼테르의 글이었다.

그 소중한 곳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왕들도 신하도 없으며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형제이다.<sup>39)</sup>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1848년 헌법에 자유, 평등, 우애가 공식적으로 명기된다. 1848년 헌법은 19세기 산업화와 함께 급성장한 부르주아 계급의 주도로 작성된 것이었다. 여기에 자유, 평등, 우애는 1790년대의 혁명적 의미를 상실한 채로 다른 여러 정파들의 가치와 나란히 어색하게 들어가 있다.

제4절. 공화국의 원리는 자유, 평등, 우애이며 공화국의 토대는 노동, 가족, 소유권, 그리고 공공질서이다.<sup>40)</sup>

---

37) “구세주의 종교는 결코 죽지 않았으며 이제 막 그 세 번째 시기, 즉 정치적 시기인 자유, 평등, 우애의 시기에 들어섰다.”, François-René de Chateaubriand, *Mémoires d'outre-tombe*, Paris: Gallimard, 1957, p.745.

38) Mona Ozouf,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p.4372.

39) Voltaire, *Les scythes*, in *Oeuvres Completes*, Paris: Ulan Press, 2010, p.473.

1848년 헌법은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을 주장하기 보다는 단어들의 보존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헌법 제정 한 달 뒤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Louis Napoléon Bonaparte)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후 쿠데타를 통해 황제에 오르면서 모든 공문서에서 우애는 사라졌다.

우애는 1871년 파리 코뮌에서 혁명적 의미로 다시 등장한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프랑스 정부와 자유주의자들은 항복을 선언했지만 파리의 노동자들과 대중들은 결사항전을 주장하며 파리 코뮌을 결성했다. 파리 코뮌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거느린 프로이센과 프랑스 부르주아들의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 우애를 통한 시민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약 두 달 동안 시민들의 자치 정부가 유지되었고, 이 시기 파리 시내 곳곳에는 “자유, 평등, 우애 아니면 죽음”의 슬로건이 새겨졌다.<sup>41)</sup> 1790년대의 우애가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혁명적 우애의 생명력은 파리 코뮌의 패배, 그리고 무자비한 진압과 함께 멈춰버린다.

파리 코뮌의 몰락 이후 프랑스에는 자유주의자들의 주도로 다시 공화정이 들어섰다. 공화주의 정부는 자유, 평등, 우애의 계승을 선언했지만, 그들의 우애는 1790년대의 우애가 아니었다. 공화국의 우애는 사회가 해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 혹은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장치 정도로 해석되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우애는 “우리를 서로 돕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sup>42)</sup>

자유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 평등, 우애라는 슬로건 그 자체였다. 파리 코뮌을 거치면서 갈라진 프랑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유, 평등, 우애는 근대 프랑스를 탄생시킨 혁

---

40) *La Constitution française de 1848*, Paris, 1848 on the site [www.bnf.fr](http://www.bnf.fr).

41) Patrick Bloche, “La Commune n'est pas morte”, *Liberation*, 18. mars. 2013.

42) Gabriel Compayré, *L'instruction civique à l'usage des écoles primaires*, Paris: Delaplane, 1888, p.275. 또한, 피에르 라루스는 우애를 “국가의 사회적 역할”로 축소했다. Pierre Larousse, *Grand dictionnaire universel*, Paris: Larousse, 1866-1876. fraternité 항목 참조.

명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상징이며, 무엇보다 대중들에게 가장 친숙한 상징이었다. 1881년 교육부 장관 쥘 페리(Jules Ferry)의 주도로 초등 학교의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자유, 평등, 우애를 가르쳤다. 의무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화국의 시민, 다시 말해 프랑스 국민을 만드는 것이었으며,<sup>43)</sup> 자유, 평등, 우애는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자유, 평등, 우애는 혁명적 성격이 거세된 채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 나카에 초민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자유, 평등, 우애를 소개하게 된다.

#### IV. 결론

우애라는 단어는 중세 유럽에서 코뮌이 성장하던 시기에 등장했다. 우애는 도시민들을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봉건 질서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사적 재산의 소유를 통해 자유와 평등을 보전하려는 부르주아 계급에 맞서 가진 것이 없는 하층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는 장치로서 주장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1790년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우애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프랑스인들은 공동체의 가치가 결부된 우애보다는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연대’(solidarité) 혹은 ‘톨레랑스’(tolérance)<sup>44)</sup>를 더 선호한다. 우애는 자유, 평등과 함께 과거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억으로 존

---

43) Jules Ferry, *La lettre de Jules Ferry aux instituteurs*, Paris, 1883.([https://www.ac-paris.fr/portail/upload/docs/application/pdf/2015-06/lettre\\_ferry\\_instituteurs.pdf](https://www.ac-paris.fr/portail/upload/docs/application/pdf/2015-06/lettre_ferry_instituteurs.pdf)) 참조.

44) 우리나라에서는 tolérance를 흔히 ‘관용’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tolérance는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관용은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다.

재할 뿐이다. 21세기 프랑스는 1789년 온건파가 지향하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우애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언제나 다시 소환될 수 있는 기억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우애이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게드파(les guesdists)는 자유주의자들의 공화주의 정부를 향해 “실업자가 있는데 자유를 말할 수 없고, 폐쇄된 작업장이 있는데 평등을 말할 수 없고, 쫓겨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우애를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sup>45)</sup> 이들이 비판하던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1790년대의 우애는 다시 등장할 것이다.

---

45) Julia Nicholls, *Revolutionary Thought after the Paris Commune 1871-1885*,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183.

## ■ 참고문헌

- 강철구, 「세계사 속의 프랑스 혁명」, 『프레이션』, 2008년 7월 9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륜문답』,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소명출판, 2005.
- 박용진, 「중세 프랑스 코뮌의 성격 변화 : 아미앵의 경우」, 『서양중세사 연구』 12권, 2003년 9월.
- 박윤덕, 「프랑스 혁명 초기의 수동 시민」, 『역사와 담론』 90호, 2019년 4월.
- 브라이언 타이어니 · 시드니 페인터, 『서양중세사』, 이연규 옮김, 집문당, 1988.
- 자크 르 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5.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 장 보댕, 『국가론』, 임승휘 옮김, 2005..
- 주명철, 『프랑스 혁명사』, 여문책, 2015-2019.
- 최갑수, 「1789년의 「인권선언」과 혁명기의 담론」, 『프랑스사 연구』 4호, 2001년 2월.
- Balibar, Etienne, “‘Droits de l’homme’ et ‘Droits du citoyen’. La dialectique moderne de l’égalité et de la liberté”, *Actuel Marx* n.8, Paris, 1990.
- Bloche, Patrick, “La Commune n’est pas morte”, *Liberation*, 18. mars. 2013.
- Brugière, Amable Guillaume Prosper, *Histoire de la Convention nationale*, Paris: Nabu Press, 2012.
- Chateaubriand, François-René de, *Mémoires d’outre-tombe*, Paris: Gallimard, 1957.
- Compayré, Gabriel, *L’instruction civique à l’usage des écoles primaires*, Paris: Delaplane, 1888.
- Desportes, Pierre, “Les communes picardes au Moyen Âge: une évolution

- originale”, *Revue du Nord*, t.70, Lille, 1988.
- Dictionnaire Larousse Latin*, Paris: Larousse, 2016.
- Ferry, Jules, *La lettre de Jules Ferry aux instituteurs*, Paris, 1883.
- Fossier, Robert, *Histoire de la Picardie*, Toulouse: Privat, 1974.
- La Constitution française de 1848*, Paris, 1948.
-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Paris, 1789.
- La Déclaration des droits et devoirs de l'homme et du citoyen*, Paris, 1795.
- “La fraternité”, *Laïcité Aujourd'hui*, Paris, 10. avril. 2013.
- Larousse, Pierre, *Grand dictionnaire universel*, Paris: Larousse, 1866-1876.
-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wnsham Churchill, 2009.
- Manière, Fabienne, “14 juillet 1790, La Fête de la Fédération”, *herodote*, Paris, juillet. 2019.
- Mathiez, Albert, *Le Club des Cordeliers pendant la crise de Varennes et le massacre du Champ de Mars*, Paris: Hachette, 2016.
- Nicholls, Julia, *Revolutionary Thought after the Paris Commune 1871-1885*,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Ozouf, Mona,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in *Les lieux de mémoire*, Volume 3, Paris: Gallimard, 1997.
- Robespierre, Maximilien, *Oeuvres de Maximilien Robespierre*, Tome VI,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 Rousseau, Jean-Jacques, *Émile ou De l'éducation*, Paris: Flammarion, 2009.
- Voltaire, *Les scythes*, in *Oeuvres Completes*, Paris: Ulan Press, 2010.
- Weber, Max, *The City*, Don Martindale and Gertrud Neuwirth, trans. and ed., New York: Free Press, 1966.

❖ ABSTRACT

A study on fraternity, the idea of the French Revolution: Problems with Korean translation and history of the concept

Koh, Won  
Kyung Hee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fraternity, the idea of the French Revolution, to comprehe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term. People in Korea often get confused by the terms fraternity and philanthropy. However, fraternity is a distinctly different term from philanthropy. The word fraternity appeared during the growth of communes in medieval Europe. Communes were born out of a voluntary association among the citizens, based on the bond of an oath. It is the fraternity that bound the people and gave the city freedom from the dominion of feudalism. The radicals of the French Revolution accepted fraternity as the idea of the revolution. After the fall of the radicals, the liberals changed the meaning of fraternity, and “Liberty, Equality, Fraternity”, which was the slogan of the radicals, became a symbol of the French Republic in the late 19th century.

Key Words : Liberty, Equality, Fraternity, Property, French Revolution

■ 논문접수일 : 2020. 08. 10

■ 심사완료일 : 2020. 09. 13

■ 게재확정일 : 2020. 09. 14